



부르면 오는 '읍서버스' 운행시간 바뀐다

고령층 호출 불편·고정노선 이용시간 혼돈 개선 목소리 수산·태흥리 시범 운영... 내달부터 오후 2~9시로 변경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 중인 전화로 호출해 부르는 수요응답형 '읍서버스'의 운행 시간 등을 개선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와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에서 운영 중인 '읍서버스'를 5월 1일부터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읍서버스 시범 운행 기간 중 해당 지역의 버스 배차 간격은 수산리 60분에서 16분,

태흥리 43분에서 11분으로 크게 단축됐다. 그러나 고령층의 호출 불편과 운수 종사자의 휴게시간으로 인한 배차 지연, 노선버스에서 읍서버스로 변경되는 시간 조정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나타나 제주도는 지역별 수요에 맞게 고정 노선버스 및 읍서버스의 운행시간 등 운영방법을 개선했다.

먼저 고정 노선버스가 오후 2시까지 운행되고 이후에는 읍서버스가 투입, 고정 노선버스가 읍서버

스로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이용시간 혼돈을 최소화했다. 고령층 이용자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전·후로 병원이나 마트를 이용하는 수요와 학교시간 학생 수요를 고려해 오후 2~6시에는 고정 노선버스가 수요에 맞춰 일부 운행된다.

5월 1일부터는 읍서버스를 호출할 수 있는 시간대가 오후 2시~9시로 변경되며 호출 방식이 아닌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의 배차 시간대는 오전 6시~오후 6시로 바뀐다. 단 남원읍 태흥리 일원의 경우 학생들의 등하교가 없어 버스 이용자가 급감하는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읍서버스가 운행된다.

현재는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의 고정노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읍서버스,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고정노선,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읍서버스가 운행해 왔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이용자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읍서버스 운영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용자 불편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읍서버스를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주민들이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지원 1억 보조... 내달 3일까지 접수

제주도가 농산물 품질관리와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주도내 농업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유통장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컨테이너, 파렛트, 운반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올해 사업비는 2억1575만4000원(보조 1억2945만2000원, 자부담 8630만2000원)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5월 3일까지다.

사업 대상자는 출자금 1억원 이상, 법인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생산자단체별 지원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최근 3년간 동일 장비류 구입을 위해 보조금을 받은 조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 생산자단체는 도 갑골유통과를 방문해 보조사업 지원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청 접수 이후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서핑 쉽지 않네 29일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에서 초보 서퍼들이 윈드 서핑을 배우고 있다. 강희만기자

“도서·산간 물류체계 개선 공동 대응”

전국 광역의회 건의안 채택

도서·산간지역 화물 및 택배 등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송영훈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지난 25일 제주 썬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제주에서 개최한 제7

차 정기회에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경학 제주도의회의장,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정기회 개최를 주관하면서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을 안건으로 제안했다.

해당 건의안은 제주 해상운송의

공적기능 도입을 통해 제주지역 생산품의 경쟁력 제고 등 물류비 절감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제주를 포함한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이 지리적 제약으로 인한 차별 없이 보편적 생활물류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정기회에 참석한 위원 등은 해당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협의회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에 대해 내달 27일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제3차 정기회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해 처리키로 했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문인관에서

영세농업인이 살아야 제주농업이 산다

FTA(자유무역협정)가 우리 농촌에 사형선고와도 같이 생각되던 시절이 있었다.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졌을 때 IMF의 요구조건이 자유무역을 통한 시장 개방이었다. 그 첫 개방국인 칠레와의 협상을 시작으로 2004년 많은 농민이 격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비준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그 결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농업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농촌을 살리기 위한 수많은 정책과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 중에서도 시설자금 지원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런 영향으로 농촌은 과거보다 경쟁력을 갖추게 됐고, 소득 면에서도 큰 효과를 얻은 점은



강 하 영
제주자치도의회의원

갈수록 쇠퇴하는 농촌경제 정책·지원책 대농에 집중 영세농업인 정책 확대를

역에서 수익 없이 운영되는 마트도 있긴 하지만 점점 거대 자본력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협하는 측면은 부인할 수 없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FTA 보조금 또한 농협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그 기준들이 농민을 위한 기준인지 농협을 위한 기준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농민이 잘 벌어야 농협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농협에서 유통, 가공 등 농민의 소득에 직결된 경제사업을 등한시한다면 농가들은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금의 우리 농촌은 밖으로는 개방 압력이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안으로는 농업경쟁력이 날로 악화하고 있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두 개의 파고와 지원이 농지를 소유한 대농에게 집중되었으며, 소규모 농가들은 더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령화는 더 심각해지면서 농가 수는 감소하고 농촌경제는 크게 쇠퇴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농민의 이익을 조직화하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농협의 역할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농협이 대형화되면서 농민들 보다는 농협 자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도한 신용사업은 물론 농업과 관련 없는 경제 사업에 더 몰두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배당금이라는 포장으로 위장을 하고는 있지만 마트, 음식점, 장례식장, 식당업까지 점점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물론 상권이 적은 지

역에서 수익 없이 운영되는 마트도 있긴 하지만 점점 거대 자본력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협하는 측면은 부인할 수 없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FTA 보조금 또한 농협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그 기준들이 농민을 위한 기준인지 농협을 위한 기준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농민이 잘 벌어야 농협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농협에서 유통, 가공 등 농민의 소득에 직결된 경제사업을 등한시한다면 농가들은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금의 우리 농촌은 밖으로는 개방 압력이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안으로는 농업경쟁력이 날로 악화하고 있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두 개의 파고와 지원이 농지를 소유한 대농에게 집중되었으며, 소규모 농가들은 더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령화는 더 심각해지면서 농가 수는 감소하고 농촌경제는 크게 쇠퇴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농민의 이익을 조직화하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농협의 역할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농협이 대형화되면서 농민들 보다는 농협 자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도한 신용사업은 물론 농업과 관련 없는 경제 사업에 더 몰두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배당금이라는 포장으로 위장을 하고는 있지만 마트, 음식점, 장례식장, 식당업까지 점점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물론 상권이 적은 지

秦氏 濟州道 入島祖 墓祭 奉行 및 定期總會

秦氏 濟州道 入島祖 墓祭 奉行 및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 하오니 多數 宗親의 參與 바랍니다.

다음

- 일시 2024년 5월 5일(일) 오전 10시
- 장소 광명정 선영(애월읍 애월리)
- 총회 애월하나로마트 연회장 2층 오전 11시

■ 안건

- 2023년도 결산 승인의 건
-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종친회관 건립의 건
- 임원선출의 건

■ 연락처

- 총무이사 진영학 ☎ 010-4241-2251

秦氏 濟州道 宗親會

연안김씨 한림학사공파 입도조 묘제 봉행 및 정기총회

갑진년 새봄을 맞이하여 종친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축복이 깃들시길 기원합니다.

연안김씨 제주 입도조의 묘제 봉행과 2024년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종친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일시 2024년 5월 5일(일) 오전 11시
- 장소 제주시 화북2동 5232 입도조 묘역

■ 회의안건 : 1. 2023년도 결산보고
2. 2024년도 예산안 승인
3. 회칙개정
4. 기타사항

■ 연락처 : 회 장 두원 010-3697-4803
총무이사 석주 010-9639-3800
재무이사 경역 010-8201-6199

연안김씨 한림학사공파 제주도종친회

회장 김 두 원

주택·아파트·상가 빌딩

리모델링의 새로운 변화!

시설물·금속·창호·도장·방수
조경시설물·전문건설업

제주시 서광로 256. 4층

퀵/건축디자인

010-2699-7080
F:064)723-1045 / E:ehdrb0064@hanmail.net

심옥두유 꿀잠

바쁜 하루, 편안한 꿀잠으로 마무리하세요

긴장완화와 숙면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제품
원액두유(대두고형분 7% 이상) 30%, 사양벌꿀(국산) 0.1%, 감태혼합추출물 0.2%, L-테아닌 1

삼육식품 Salm Food 제주도총판 대표 윤봉실
064)757-1416